

오피니언

光日春秋

안도현



영화 '화려한 휴가'를 봤다. 영화를 보지 않았더라도 그 줄거리는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눈시울을 뜨뜻하게 적시는 부분이 적지 않았다. 학교 밖으로 시위를 하러 떠나는 고등학생들의 눈 밑에 교사가 치약을 발라주는 장면이 특히 그러했다.

영화의 이 사소한 장면은 그 사소한 때문에 빛난다.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막아서도 안 되는 역사의 흐름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었다.

오늘날 젊은이들한테 '광주'는 먼 옛날의 이야기일지 몰라도 그 시절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광주'는 여전히 현실이다. 이 엄청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명칭은 '5·18광주민중항쟁운동'이다. 신군부에 의해 무참하게 죽어간 민주주의를 지켜온 사람들은 이를 '광주항쟁'이라 부른다.

얼마 전 유력한 대선주자의 한 사람은 이를 두고 스스럼없이 '광주사태'라고 말해버렸다. 놀라웠다. 이 용어는 무고한 광주 시민들을 '폭도'나 '불순분자'로 내몰던

자들이 고안해낸 것이다. 이미 폐기처분 되어야 할 잘못된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은 역사의식이 제5공화국 수준이라는 뜻이다.

과거로의 화려한 회귀일 수도 있다. 언

어는 의식을 반영한다. 1980년 5월의 광주를 '사태'로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잘못된 '사태'이다. 모름지기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하고, 그 이전에 의식을 바꿔야 하고, 또 의식을 바꾸려면 치고 박는 경선 준비보다는 '화려한 휴가'를 몇 번 더 보는 게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무릇 하나의 명칭이란 단순한 사건의 기호에 머무는 게 아니다. 그 사건이 시작할 때부터 마무리될 때까지를 두루 아우르면서 역사적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뜻대가 되는 것이다.

1894년에 이 땅에 일어난 큰 사건이 있다. 이를 부르는 명칭도 역사학계에서는 다양하다. '동학농민혁명'이나 '갑오농민전쟁'이 최근에는 주를 이루고 있는 듯하다. 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사건은 '동학란'이었다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는 슬그머니 '동학운동'으로 바뀌어 있었다.

1970년대까지 한국 현대사에는 '혁명'이 없었다. 아니, '5·16혁명' 하나밖에 없었다. 나는 '군사 쿠데타'를 '혁명'으로 달달 외우고 성장한 세대이다. 그러나 아무도 나한테 잘못 가르쳤다고 사과하는 사

람이 없었다. 그래서 유독 나를 잘못 가르친 어른들에게 따지고 싶어지는 것일까? 언어는 변화한다. 그것도 그 형태와 의미가 변화할 뿐만 아니라 사물처럼 영양분을 먹고 썩속 자란다. 물론 역사의 무대 저편으로 사라져가는 언어도 있다. 때로는 언어에 유기체적 요소가 들어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다.

'한국전쟁'이 보편적인 용어로 자리 잡으면서 '6·25동란'은 우리 눈앞에서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 한편 우리가 떠나보낸 '동무'의 자리를 '친구'가 차지하고 앉아있기도 하다.

1980년은 내가 스무 살이 되던 해였다. '광주사태'가 일어나기 직전, 대학생인 우리는 '복귀가 남이면 우리도 총을 든다'는 벽에 적힌 구호를 보아야 했다. 그 속에는 우리는 빨강기가 아니라라는 보이지 않는 의미가 들어 있었다.

그럼에도 그해 광주는 무법자들에 의해 온 도시가 빨간색으로 물들어야 했다. 역사는 발전한다는데, 이 참에 한 번 묻고 싶어진다. 언어는 과연 진보하는가?

<시인·우석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언어의 진보(?)

시설

기아차 노조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

기아차 노사가 우여곡절 끝에 임금협상 제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지역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다행이다. 제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17일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가 주목된다.

기아차 노조의 파업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기아차는 물론 지역사회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노조는 파업이 '연례행사'가 될 만큼 강경 투쟁을 벌여왔다. 광주의 대표적 대기업인 기아차의 잦은 파업으로 협력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등 지역 사회가 몸살을 앓아야 했다.

기아차의 경영상태가 좋은 것도 아니다. 기아차는 지난 2·4분기 370억원의 흑자를 냈지만 지난해 1천25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올 상반기 영업적자도 367억원에 달하고 있다. 기아차는 올해 흑자 전환을 다짐했지만 불투명하다. 자금사정이 넉넉하지도 않다. 기아차는 이달 중 2천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

행할 예정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우려로 해외 채권 발행을 유보한 대신 자금 조달력을 국내로 바꾼 것이다. 미국과 중국 공장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에도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기아차 노조는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을 성찰하기 바란다.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노조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본다. 기초의 잠정합의안에 특별 격려금 50%를 추가한 것이 대표적이다. 총 2천812억원에 달하는 기아차의 인건비 부담이 흑자전환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기아차는 파행적 사태를 마무리해야 한다. 노조는 지난달 26일 찬반투표에서 제1차 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켰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협상안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소모적 협상을 끝내야 할 것이다. 기아차 노조가 지역사회의 상생을 위해 조업 정상화 등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 '눈먼 돈'이라니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일부 부재지주들까지 제도의 허술함을 이용해 직불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풀릴 세고 있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수법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부재지주들이 경작 농민에게 경작료를 낮추거나 부재지주가 직접 경작확인서를 제출해 직불금을 챙기는 것은 관행이 됐다. 부재지주와 경작 농민간 '나뉘먹기식' 이면계약도 성행하고 있다.

농지에 건물을 세운 뒤에도 농사를 짓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만들어 직불금을 받는 사례까지 있다고 하니 할 말이 없다. 전남도가 적발한 농지전용 이후에도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은 사례가 지난 2006년 42건, 2005년 27건에 달한다. 연간 2천500억원에 달하는 직불금이 '눈먼 돈'이나 다름없게 된 것이다.

문제는 직불금 신청을 농지 소재지가 아닌 주소지의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농사를 짓지 않는 토지 소유주들이 편법을 동원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더구나 토지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인이 합의하면 경작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제도의 맹점이 부당행위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행정기관의 대처도 느슨하다. 쌀소득보전 직불금 제도의 문제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돼 왔다. 제도에 허점이 많지만 단속 의지만 있으면 부당 수령행위를 막을 수 있다. 제도 개선도 서두르는 것이 당연하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은 농가소득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시켜 주기 위한 제도다.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정부는 편법 수령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부터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직불금이 더 이상 '눈먼 돈'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정신과 의사 김홍식의 LA통신

미국에 사는 한국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항상 불만을 느끼는 부분이 한국말을 잘 할 줄 모른다는 것이다. 중국이나 일본 아이들은 이민을 온 뒤 몇 대가 지나도 자기 언어나 문화와 전통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데 유독 우리 아이들은 몇 대는 고사하고 몇 년만 지나면 한국말을 못하고 미국인 행세를 하려는 것이다.

언어 의사소통의 도구이긴 하지만 사실 언어의 중요성은 그보다도 그 속에 훨씬 중요한 민족정신·민족혼이 같이 깃들여 전달된다는 데 있다. 이민 온 현지 나라에 동화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다민족이 섞여 사는 이곳의 정책은 같이 섞이기는 하되 자기 고

만만하게 자기 부모를 소개하는데 그렇지 못한 집의 애들은 창피하게 생각하여 숨기려하고 기가 죽는다. 비슷한 이유 아닐까.

브라질은 우리 한국보다 못사는 나라라. 그래서 그곳 아이들은 자기가 한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은 아닐까. 그러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한국인임을 내세우고 싶은데 반대로 미국에 사는 우리 애들에게는 한국인이라는 것이 창피하지는 않았을까.

세월이 지난 지금, 어느 곳이나 주말 한글학교는 만원이다. 과거에는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였는데 요즘은 아이들 스스로가 한국말을 배우려한다. 그것은 그들이 갑자기 애국자가 되어서가 아니

친정이 잘 살아야

유의 것을 버리지 말고 유지하며 지키기를 권장한다. 이질적인 것들이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며 조화를 이루어 나가기를 장려하기 때문에 이민자들이 오히려 미국을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되는 것이다. 전쟁이 나면 출신국과는 상관 없이 누구나 미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미국을 진정으로 사랑한다.

이 때문에 내 좁은 속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 미국에서 한국말 못하는 아이들을 볼 때면 흔히들 자조적으로 말하는 '한국 사람들은 틀렸어' 하며 국민성이 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십여 년 전 브라질을 방문한 일이 있었다. 그곳 교포 아이들은 한국말이 유창할 뿐 아니라 한국적인 예절이나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 사는 아이들의 이상한 변화가 '국민성' 때문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이 때다.

어렸을 때 부모들이 학부모회 등으로 학교를 방문했던 때를 회상해보자. 부모의 지위나 처지가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내 세울만한 집안의 애들은 자신

만만하게 자기 부모를 소개하는데 그렇지 못한 집의 애들은 창피하게 생각하여 숨기려하고 기가 죽는다. 비슷한 이유 아닐까. 브라질은 우리 한국보다 못사는 나라라. 그래서 그곳 아이들은 자기가 한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은 아닐까. 그러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한국인임을 내세우고 싶은데 반대로 미국에 사는 우리 애들에게는 한국인이라는 것이 창피하지는 않았을까. 세월이 지난 지금, 어느 곳이나 주말 한글학교는 만원이다. 과거에는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였는데 요즘은 아이들 스스로가 한국말을 배우려한다. 그것은 그들이 갑자기 애국자가 되어서가 아니

간요에 의해서 행동은 바꾸게 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을 바꾸게 할 수는 없다. 애국을 해야 된다고 강조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좋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히 그 나라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외국에 나와 있는 한국인들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은 자신의 공보다도 '친정' 덕인 것이다. 자신을 위해서라도 친정이 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 이같은 이유에서다.

자신을 위해서라도 친정이 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 이같은 이유에서다.

도·농간 결연 확대, 일손 돕기·농촌체험 활용 했으면

농촌 지역의 영농 기계화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기계로 할수 없는 일이 훨씬 많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 여간 힘든게 아니다. 몇 톤 남는다고 비싼 인건비를 주고 인부를 고용하기도 힘들다. 그나마 인부를 사서 쓰려고 해도 힘 안들고 일하면서 비슷한 수준의 돈을 받을 수 있는 일거리를 찾으려는 인부들이 많아 쉽지 않다.

주말을 이용해 직장 단위나 가족끼리 인근 농촌을 찾아 돕는다면 농가에 큰 도움이 될 듯하다. 가족이 함께 한다면 자녀들에게는 훌륭한 농촌 체험 학습의 기회일 수도 있다. 농촌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일손이 부족한 농촌 마을과 도시민들을 연결해 농촌 일손돕기나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종섭·광주시 동구 호남동

기고

김한규



급속한 도시화·산업화로 도시는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대도시에서 사는 시민들 대부분이 매일 출·퇴근 할 때 도로에서 겪는 교통체증은 실로 심각하다. 시민들이 교통이란 말만 들으면 일상생활에서 가장 고통을 주는 공공서비스로 생각되는 교통체증 만큼은 하루 빨리 해소되어야 마땅하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비용을 적게 들여서 좀더 빠르고 편리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이동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민들은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위해 마련해 놓은 교통시설과 교통

다. 교통의 모든 것을 법과 규칙에 의해 정할 수는 없지만 시민의 윤리의식에 따라 교통문화는 올 바르게 정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광주 모 초등학교 주변은 불법 주·정차 문제로 심각하다 못해 아이들이 위험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왕복 2차로인 초등학교 후문 횡단보도 주위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줄지어 서 있다.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아이들은 후문 앞 횡단보도 쪽으로 다가 오는 차를 볼 수 없는 반면에 운전자 역시 신호를 기다리는 아이들을 볼 수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 나겠는가. 상상에 머물기

시민이 지키는 도시교통은 편리하다

운영 체계를 질서 있게 이용해야 한다. 교통질서를 잘 지키면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가 될 뿐만 아니라 시민이 지키는 도시교통은 매우 편리하다.

시민들이 보다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위해서 정해진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 교통체계는 유명무실하게 된다. 만일 시민 개인의 편의를 이유로 누구나 편리하게 정한 규칙을 어길 경우 교통체계 효율화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른 시민에게는 도리어 불편을 끼치게 되며, 또 사회적 손실도 가져 오게 된다.

사회적 손실은 규칙을 어긴 시민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지만 선진시민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교통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되겠는가. 특히 도로에서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는 행위는 반드시 시민의 자율적인 힘으로 근절되어야 한

를 바라지만 아이들이 자칫 교통사고를 당한다면 책임소재를 규명하기에 앞서 우리를 미래의 꿈나무는 어찌 되란 말인가.

아무리 악용규칙의 정글법칙이 적용되는 비정한 도시사회이지만 교통문화를 저해하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우리 어린이들의 최소한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정주공간을 침해하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결코 외면할 수 없다.

제88회 전국 체육대회를 앞둔 평범한 한 시민으로서, 도시에서 돈을 벌고 사는 일반시민으로서, 도시를 관리하는 공무원으로서,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고 정책을 만드는 고위 공직자로서, 우리 모두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도시교통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야만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부구청장)

농촌까지 파고든 퇴폐 광고물, 이대로 둘건가

경운기를 밭을 갈다 점심 먹고 나왔는데 광고 전단이 붙어 있었다. '화끈·출장 맛 사지·농촌의 피로를 전신욕으로 푸세요'라는 내용이다.

이런 퇴폐적 광고 전단이 농촌 지역까지 들어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농기계, 전파대, 지하수 뽑아내는 전기계량기 박스함에도 덕지덕지 붙어 있다.

예전 여자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 농촌에 나타나서 커피를 팔거나 맥주 한잔 하라며

경운기를 잡아 세우던 때도 있었다. 순진한 농민들이 한 번 이런데 밭을 들어 놓았다가 장남마다 읍내에 나가서 돈 쓰고 다니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불법 광고 전단지는 왜 근절되지 않는 것인가. 경찰이나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

흔한 일이라고 넘기지 말고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 ▲유근우·광양시 도이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無等鼓

이승만, 조병옥, 장면. 해방 이후 60년 대 초까지 우리 정치사의 주인공들이었다는 점 외에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풍부한 경험에다 당시 일반인들은 엄두를 낼 수 없었던 '해외박사'라는 특별 신분이 주는 카리스마까지 더해지면서 한국 현대정치사를 풍미했다.

박사에 대한 우리 사회의 남다른 경외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시대를 초월한다. 무보다 문을 숭상하는 오랜 전통에다가 희귀성만으로도 학문의 깊이는 물론 인격까지도 인정받았던 시절도 있었다.

사정이 크게 달라진 요즘에도 여전히 박사학위는 권위의 상징이 되고 있다. 정치인들이 선전용 포스터에 국내는 물론 외국대학에서 얻은 학위를 기록하는 것은 익숙한 풍경 중의 하나다. 전문 자유직 종사자들도 학위를 내걸어야 체면이 유지되고 고객

이 많아지는 것으로 여기는 풍토다. 잊혀질만 하면 우리 사회는 '가짜 박사' 파문으로 한바탕 소동이 일곤 한다.

지난해에는 러시아 유명 음악대학의 박사학위를 사들인 현직 교수 2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러시아어를 몰라 자신의 학위증 내용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코미디를 연출하기도 했다. 연구실적 부풀리기와 표절 시비도 연례행사로 되풀이되고 있다.

유능한 큐레이터였던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예일대 박사 학위가 가짜로 밝혀지면서 교수 사회가 학위 검증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김옥랑 동숭아트센터 대표 겸 단국대 교수와 이창하 전 김천과학대 교수 역시 학위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은 신세에 처했다.

연구보다는 학위를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학연을 좇아 요령만 익히는 학자가 터에 국내는 물론 외국대학에서 얻은 학위를 기록하는 것은 익숙한 풍경 중의 하나다. 전문 자유직 종사자들도 학위를 내걸어야 체면이 유지되고 고객

이 많아지는 것으로 여기는 풍토다. 잊혀질만 하면 우리 사회는 '가짜 박사' 파문으로 한바탕 소동이 일곤 한다.

연구보다는 학위를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학연을 좇아 요령만 익히는 학자가 터에 국내는 물론 외국대학에서 얻은 학위를 기록하는 것은 익숙한 풍경 중의 하나다. 전문 자유직 종사자들도 학위를 내걸어야 체면이 유지되고 고객

이 많아지는 것으로 여기는 풍토다. 잊혀질만 하면 우리 사회는 '가짜 박사' 파문으로 한바탕 소동이 일곤 한다.

연구보다는 학위를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학연을 좇아 요령만 익히는 학자가 터에 국내는 물론 외국대학에서 얻은 학위를 기록하는 것은 익숙한 풍경 중의 하나다. 전문 자유직 종사자들도 학위를 내걸어야 체면이 유지되고 고객

이 많아지는 것으로 여기는 풍토다. 잊혀질만 하면 우리 사회는 '가짜 박사' 파문으로 한바탕 소동이 일곤 한다.

/김재철 사회 2부장 ajkim@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